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기호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한 번 해보자. 만약 미국 애리조나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날 한가롭게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던 토마스는 별해피망처럼 기사 하나가 올라온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글을 화끈거리게 만들고, 고개를 절로 수그러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뿐이다. 우리 군의 주요 지휘관이라는 사람들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

그걸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원고지를 펼치고 동시 스프린트를 풀 수 있을 만큼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이 천안함 사태 하나만 두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승인해줄 거라고 믿진 않을 것이다(미국의 대 한국 투자자본, 교역규모, 대 중국 관계 등을 생각해 보면, 대반에 계산은 나온다.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누굴 함께 때려달라고 했을 때, 같이 싸움에 나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勇士)가 아닌, 희생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또한 언제든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다. 군 수뇌부들은 그런 희생자들의 제단 앞에,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어떻게 그리 허술하게 사고를 당해야만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 측에도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좌파정부라고 부르는 지난 정권에서는 해마다 9%에 가까운 국방예산이 증액되었다. 이 정권 들어서는 과연 국방예산이 얼마씩 증액되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권인지, 4대강 정비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다. 왜 우리의 합선 침몰 경위를 국민보다 앞서,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애리조나에 사는 토마스도 묻는다. 신문 기사를 보고, 한국의 역사를 구글로 훑어본 토마스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런 과연 돈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오랜 식민 근성 때문인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거 참 이상한 나라인 건 마찬가지다. 토마스의 질문에 나는 그저 고개를 푹 수그릴 뿐이다.

〈소설가·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가 묻는다

다했다는 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다수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안함 사태가 북핵 축의 소행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의 발안처럼 보복 작전을 펼치는 것에 온 국민이 합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는 마당에, 미국이 그렇게 손쉽게 오케이, 보복 작전의 승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가?

설사,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 군대가 단독 작전을 감행했다고 치자. 그럼,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당연히 한미군사협정 위반이라며 발을 뺄 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한데,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주장은 또 뭐란 말인가? 그 사람들은 모두 반어와 모순을 즐기는 전위예술가들이란 말인가?

군 수뇌부들은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다.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든, 46명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스러져갔다. 그들은 용

시설

지역경제 발목잡는 고용없는 성장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입주 업체와 생산 실적은 급증했으나 고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지역마저 '고용없는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중심의 자본·기술 집약적 장치산업 위주인 여수산단과 광양연관산단의 고용 정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수산단의 생산 실적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자리 수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광양연관 산단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입주 업체가 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인원은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와 삼성광주전자 등 지역 주요 기업들 역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라인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으나 서민들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3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취업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10%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도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와 삼성광주전자 등 지역 주요 기업들 역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라인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 역시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앞장서야 한다.

'생명의 보고' 갯벌 훼손 더 이상 안된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사라진 갯벌의 넓이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가깝다고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5년 사이에 전남에서 없어진 갯벌은 19.5km에 달한다. 산업단지 등 개발에 밀려 갯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갯벌은 후세들에게 남겨줄 유산임에도 보전보다는 개발논리에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갯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육지 생산성의 9배나 높은 경제적 가치 말고도 생태계의 다양성, 수질정화 능력, 자연재해 및 기후 조절 등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갯벌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1㎡당 2025원에서 2006년 3919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래서 갯벌을 '생명의 보고(寶庫)'로 부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1036.9km)이 분포해 있는 전남은 축복받은 땅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 중도는 갯벌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유럽 북해 연안, 미국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3대 갯벌인 전남 서해안 갯벌은 미래의 지역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갯벌을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증도가 있는 신안군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염전 조성 등으로 1.7km의 갯벌이 사라진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유럽 북해 연안, 미국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3대 갯벌인 전남 서해안 갯벌은 미래의 지역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갯벌을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증도가 있는 신안군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염전 조성 등으로 1.7km의 갯벌이 사라진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매립했던 갯벌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보전과 복원에 나선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갯벌을 훼손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갯벌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정세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을 다짐하며 소중한 인연을 두터이 하는 은혜로운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모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 등 혈연이 소중한 인연으로 구성됩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부모 부모 자녀 형제의 인연으로 만나지는 것이 얼마나 두터운 인연이어야 할까? 조금만 마음

기고

김창준



요즘 봄철 풍경을 즐기 위해 나를 이끌어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등산은 봄철 최고의 생활체육으로 사랑받고 있다. 반면, '등산'이라는 단어에서 정상을 올라야만 한다는 거부감을 가지고 "올라가자 다시 내려올 걸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산에 오르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등산보다 가벼운 무언가를 찾던 사람들이 트레킹이란 이름으로 산을 오르며 등산문화에 새로

공부하는 가족, 은혜로운 가정

을 가다듬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바라보기도 아까운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너무 가깝게 항상 함께 살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요구만 하여 섭섭해 하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차로 빚어지는 갈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가정 문제라서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급하는 법으로 세세상생 함께하는 인연이 됩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서로 자존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차로 빚어지는 갈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가정 문제라서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인연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까운 혈연으로 오기도 하고 약인이 원수 같으려 가까운 혈연으로 온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한 가족을 이루는 혈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르는 가족이나 부리는 종업원이나 직장의 동료나 나와 동고동락하는 가까운 인연들에게 합부로 하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서로 자존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차로 빚어지는 갈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가정 문제라서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등생 무거운 가방 척추장애로 이어질수도

요즘도 대부분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무거운 가방을 마치 짐보따리처럼 힘들어하며 들고 다닌다. 평소 가져가는 교과서와 과제물만 해도 5kg이 넘고 학원교재와 신주머니 등을 합치면 7kg이 넘는다. 아이들 몸무게가 보통 22kg 정도라고 볼 때 자기 체중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그나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방 끈은 일자형보다는 삼각형이 부담을 감소시켜 주므로 그렇게 매어 주고, 또 가방의 크기는 허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무거운 가방은 척추에 무리를 뒤성장과 학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척추가 일시적으로 좌우로 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장시간 지속할 때는 만성적인 근육통이나 요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학습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등하교를 전후해 가벼운 맨손 체조와 몸 풀기 동작 등을 꾸준히 하면 척추가 받는 부담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무거운 가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면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대은·광주시 남구 칠석동

녹색생활체육 트레킹

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도 '올레길 탐방 코스'가 인기를 끈 후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트레킹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트레킹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 즐기며 그곳의 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광주도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트레킹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회째 트레킹을 개최하는 등 트레킹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무등산 옛길 복원으로 시민들이 옛 길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레킹'이란 단어가 아직 생소하다면 등산의 다른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등산이 고산등반, 암벽등반, 정상등반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트레킹은 험하고 힘든 암벽등반을 피해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좋은 산길을 걸으며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을 벗 삼아 지구력을 키우는 말 그대로 즐기 위한 생활체육인 것이다. 정해진 목적지가 따로 없고 길가운데서 만나는 산이나 계곡 그 속에 머물러 있는 들, 물길, 바람과 함께하는 거는 여행인 것이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서울시도 200km의 서울일주트레킹코스를 조성해 트레킹 문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지만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해 광주를 찾는 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광주를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녹색생활체육을 실천한다면 광주를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트레킹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집단 이주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의 화랑도 수행 등에서 초기 트레킹을 찾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 사회단체 한국 트레킹클럽이 결성되고 사단법인 한국

광주 역시 2015년 U-대회 성공개회에 맞춰 무등산, 여등산 등 절경을 자랑하는 광주·전남 명산이 연계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해 광주를 찾는 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광주를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녹색생활체육을 실천한다면 광주를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광주시 생활체육회장>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한 연필 만들었으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연필을 실수로 바다에 떨어트리거나 해도 너무 쉽게 부러진다. 한번은 실험 삼아 새 연필을 방바닥에 살짝 떨어뜨려 보았는데 나무 안에 들어있던 흑색은 아무리 꺾어도 죄다 부러져 있었다. 문구점에 물어봤더니 중국산 연필이 워낙 약해서 그렇다며 필수 없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샤프 연필을 권했다. 샤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학년 아이들에게 차가운 느낌만 주는 샤프를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연필을 좀 비싸게 팔더라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연필이 나왔으면 좋겠다. 문구 제조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이런 소망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이대은·여천시 평려동

無等鼓

KBS 2TV '천하무적 야구단'을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야구만 하지 말고 예능 좀 하란 말이오" 시쳇말로 '개그'를 '다꾸'로 받아들이지 말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그 의미는 예능프로가 랩이나 야구는 기본 소재일 뿐 즐거움을 주는 것에 주력하라는 말일 것이다.

최근엔 주력선수 3명이 심기일전하겠다고 머리를 깎았다고 한다. 비장함이 묻어난다. 야구를 즐긴다는 생각보다는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듯하다. 물론 경기는 이기는 기쁨이 최고다. 하지만 과점이 없이 이기기만 한다면 그 승리의 허망함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보면 자주 '천하무적 야구단'과 오버랩된다. 전체적으로 V10의 여유가 실종된 느낌이다. 승패를 떠나 플레이의 맛박자가 엇보인다.

다육이 야구는 그 과정을 즐기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 하나다. 전략과 작전으로 상대팀을 요리하는 재미가 있다. 또 팀 경기이자 개인의 경기이기도 하다. 당장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지 못하고 경기에 이끌려 다닌다면 그것을 보는 팬들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지난해 한국시리즈의 명승부를 기억하는 팬들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SK 같은 강팀에는 힘만 써보지 못하고 하위권 팀들에 분풀이하는 형국이다.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찬스마다 헛스윙이요, 중간 계투진도 미답지 못하다. 기본이라는 버트조 차재지 못한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러도 많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기란 찾아볼 수가 없다. 경직되어 있다.

투혼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게임을 즐기는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선수를 개개인이 경기에 동화돼 즐긴다면 팀의 화합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호랑이 팬의 입장에서 청컨대 "야구만 하지 말고 예능 좀 하란 말이오." /김일환 여천대부장 khh8@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